

무너지는 제조업...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

R의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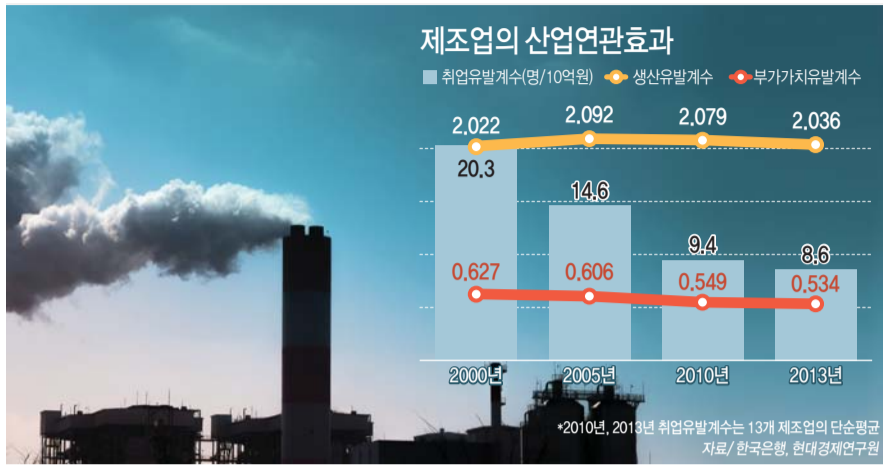
② 제조업 부가가치 뚝

제조업 경기전망 '부진'... 생산↓
일관성 없는 친노동 정책도 한 몫
제조업 총부가가치 증가율 반토막
수출 감소세... 中 기술 바짝 추격

한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단 순한 경고가 아니다. 현실이다. 기업 투자에 필수적인 규제 완화는 더디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 정책이 빨라지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미룬 채 몸을 사리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 제도화 같은 각종 법·제도 변화는 그나마 예정했던 투자마저 주저하게 만든다. 제조업생산과 가동률이 동시에 뒷걸음 하고 있다는 지표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일 정도다.

◆'빅 픽처'가 없다... 식어버린 제조업

산업활동동향은 한국 제조업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작년 11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5.1% 줄었다. 지난해 6월 7.1% 줄어든 뒤 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작년 3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설비투자는 9월과 10월 두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이다. 대규모 반도체 설비 등 일부 대기업의 투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부진한 평소의 흐름으로 돌아갔다.

11월 전산업 생산도 10월보다 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5.2%)와 통신·방송장비(-14.4%)가 감소세를 주도해 전달보다 1.7% 줄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수요가 줄어든 점과 최근 주식거래대금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다.

수출이 잘 될리가 없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무려 27.2%나 줄어 들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도 7.5% 감소했다. KDI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 자체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난해 11월 건설기성(9조2280억원)은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년 대비 110.6%나 감소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제조업의 1분기 상황 전망은 83, 매출 전망은 85였다.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재벌 개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력 산업 '공백기'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에 대한 '빅 픽처(Big Picture)'에 기반해 먹거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권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 조선·철강·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고, 믿었던 반도체 산업마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축적된 기술에 기반한 사업재편이 없고, 신산업도 나타나지 않는 '공백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업들이 올 한해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적한 것도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41.8%)다. 제조업이 체질개선을 미루면서 부가가치도 급감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총부가가치 증가율은 2002~2008년 7.5%에서 2010~2016년 3.8%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0.6%에서 1.4%, 독일은 2.7%에서 3.9%로 늘었다. 미국도 0.5%포인트 주는 데 그쳤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은 34.6%(2016년 기준)로 미국(38.3%), 일본(36.1%)은 물론, 중국

(35.2%)에도 추월당했다.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좁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120가지 국가 전략 기술의 한·중 기술 격차는 2014년 1.4년에서 2016년 1년으로 0.4년 줄었다. 의료(1.5→1년)와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0.9→0.4년)가 0.5년씩 줄어 감소 폭이 가장 큰 편이었고, 국내 주력 수출 분야인 전자·정보통신 기술 격차도 0.3년(1.8→1.5년) 줄었다.

제조업의 위축은 거시경제 저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가 9만7000명으로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취업자수가 12만7000명 줄었다.

제조업 침체에 따른 고용 한파와 가계 부채 급증으로 소비 지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1~11월 음식점 및 주점업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97.0(잠정)에 그쳤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1~11월 기준 가장 낮다.

경기 하강 국면 진입 신호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제조업 침체→고용 한파→소비 위축→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대우조선해양, 부서장급 보임자 35% 교체

관행 타파... 조직문화 혁신 시동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4일 169명의 부서장급 보임자중 59명을 신규선임 및 순환시키는 대규모 부서장급 보임인사를 단행했다.

15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59명 중 43명이 신입 부서장으로 선임됐고, 16명의 부서장이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됐다. 전체 부서장급 보임자의 35%가 이번 교체 또는 변경된 것이다.

이는 장기간 보임에 따라 조직의 활력과 직원들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부서장에 대한 360도 다면평가를 통해 평가가 저조한 보임자도 이번에 교체대상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하향식으로만 이루어지던 보임자 선정 관행을 파괴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별도의 전자혁신추진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직원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실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외부의 다양한 인사제도를 검토하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고, 이종 회사에 적용 가능한 기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번 인사에 직원들이 바라는 리더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내 기업 의 고질적 현상인 '한번 보임을 맡았던 사람은 실무 복귀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보임에서 물러난 직원들에게도 별도의 전문가 역할 등을 맡겨 글로벌 선진기업의 보임자-실무자 순환 시스템을 정착할 예정이다. 보임자로서 체득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실무를 통해 적극 활용하도록 해, 보임에서 물러난 직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은 "이번 부서장급 보임인사가 회사 경쟁력 향상과 조직문화 혁신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

추락하는 G2... 韓산업 내실 다지며 '예의주시'

올 G2 경제성장 '부정적' 전망
가전·모바일, '프리미엄' 공략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집중

산업계 이목이 주요2개국(G2)에 집중됐다. 동반 경기 하락이 가시화되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업계는 프리미엄 제품에 주력하는 동시에, 내실을 다지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15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6%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당초 발표했던 6.5%보다 0.5% 포인트나 낮췄다. 지난해 경제성장률(6.6%)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6%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6.3%, 국제통화기금(IMF)이 6.2%라고 내다보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대다수다. 국내의 증권가에서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거는 12월 중국 수출 감소다. 달러화 기준 수출량이 9개월만에 하락 전환, 전년비 4.4%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다우존스 예상치(-2.5%)를 크게 하회했다. 대미무역흑자도 전달 대비 15% 줄어든 298억7000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무역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미국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지도 않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2.0%와 1.9%로 잡았다. 올해 (2.9%)보다 대폭 낮췄다. OECD(2.7%)와 세계은행·IMF(2.5%) 등도 올해보다 낮은 성장



산업계는 올해 프리미엄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체력을 키우면서 위기를 벗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CES2019에 선보여진 LG전자 '시그니처 올레드 TV R'. /LG전자

률을 예상했다. 최근 섣달이 이어지면서 부정적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미·대중 수출액 비중은 40%에 가깝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수출 물량 중 중국으로 보내지는 물량이 70%에 가까운 수준, 자동차는 미국 시장 비중이 30%를 넘는다.

신흥시장 경제 위기도 큰 문제로 꼽힌다. 최근 세계은행은 G2 경제 위기에 따라 신흥시장 경제성장률 전망도 4.2%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신흥시장은 자동차와 가전 업계에서 주력하고 있는 새 먹거리다. LG전자가 4분기 저조한 실적을 거둔 이유도 신흥시장 부진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업계는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경기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내실을 키우면서 체력을 키우는 데 주력한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속도를 조절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집중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프로세서와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이면서, M램과 P램 등 차세대 메모리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P램 개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파운드리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에서 CMOS 이미지 센서 시장에 힘을 쏟고 있다.

가전·모바일 업계는 수익률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수익을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올해 롤러블 TV와 폴더블 폰 등 첨단 고급 제품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고급 기능을 도입한 중저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신흥시장 공략도 이어나간다.

자동차업계도 비슷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올해 미국 시장 반등 전략으로 SUV·신차·제네시스를 꼽았다. 현대차 펠리세이드와 기아차 텔루라이드로 대형 SUV 라인업을 강화하고, 제네시스 대형 SUV인 GV80도 내년부터는 북미 시장에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김재승 기자 juk@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출범

소상공인단체-KT-정부 등 구성

"5세대 통신망으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에, 인터넷 통신 피해 발생 시 손실 보상을 마련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의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한다. 15일 노영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KT,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

한다"고 밝혔다.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상과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서울 4개구(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중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신청을 받아 상생보장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의체 구성원인 안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원칙적으로 피해 본 모든 사람이 적절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대성 수습기자